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161~17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교육적 인식으로서의 종교적 직관

朴 範 哲

(동국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종교적 직관의 교육적 의미들을 탐구하였다. 종교적 직관은 통합적 인식을 가능케 하고 초월적 존재로의 고양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개념은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의 차원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자아초월을 향한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직관은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자각적 인식을 의미한다. 언어를 매개로하는 논리적, 분석적, 개념적 인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유의 한계에 놓여 있으므로 초월적 인식으로서의 직관은 언어를 초월하고 자아를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적 직관은 주관과 객관, 개체와 전체,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직각(直覺)이라는 점에서 계시(revelation)와 회심(conversion)으로 이끄는 교육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종교적 직관, 통찰, 초월, 계시, 회심

I. 서 론

교육에 있어서 “체험”의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다. 최근이라 함은 근대 이후 새롭게 부각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체험이 본래부터 교육적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인간 교육의 원형을 간직해 온 종교의 영역에서는 체험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전달 체계하에서는 종교적 체험의 교육적 의의가 사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체험이 교육적일 수 없듯이, 교육적 체험에서의 “교육적”이라는 한 정어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교육에 관한 다양한 조작적(操作的) 정의들이 가능하겠지만 “교육적” 가치와 관련된 일반적 견해들은 진, 선, 미로 대변되는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적(intellectual), 혹은 지식전달적(knowledge-transporting)이라는 의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하루 교육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유용한 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때를 가리킨다. 이러한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교육의 관념은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 현실과 맞물리면서 가장 큰 교육적 관심 영역으로 자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덕적(moral), 혹은 윤리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유익한 동화나 소설의 가치를 얘기하는 경우 “교육적”이라는 말은 “교육적”이라는 말과 동일시된다. 여기에서의 교육적이라는 말은 일정한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인성교육이나 인격교육의 주된 배경이 되는 교육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경우는 오늘날의 공교육에 대한 요청과 부응하며 상호보완적으로, 때로는 상호갈등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입시위주나 인성교육부재의 교육상황을 말할 때는 대부분 도덕성이 결여된 지식중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보화사회의 인재를 강조할 때는 의식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이 도외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당위의 이분법적 가치를 벗어나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교육적 가치에 해당하는 미적(aesthetic) 혹은 종교적(religious) 경험일 것이다. 미적이거나 종교적 체험은 지적, 도덕적 굴레에서 벗어난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인식으로서의 직관(直觀)을 반영한다. 미적인 경험은 어떠한 통념이나 개념과 같은 편견들로부터 벗어나 대상세계에 대한 직접적(direct)이고 무매개적인(immediate) 조망적 몰입이라는 점에서¹⁾ 종교적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인 통념상 종교적인 것이 대부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태도의 기준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종교적 인식은 기존의 교육적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즈키다이세쓰(鈴木大拙)는 종교의 성립을 가능케하는 것은 개인적 종교체험에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²⁾ 종교체험에 기반하지 않고는 종교의 어떠한 요소들도 화합되거나 정교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체험은 기존의 교육적

1) 한명희, 《교육의 미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2002, 177-182쪽.

2) 鈴木大拙 著, 김지건 역, 《禪, 그 세계》, 서울: 동화문화사, 12쪽.

인식개념인 종합이나 분석을 통한 합리적 사유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 체험의 핵심은 주관과 객관,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직관(intuition)”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직관의 문제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인식으로서는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앞서 제기했듯이 근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인식하에서 실증될 수 없는 인식의 과정은 배제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존재여부와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체험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소외되어온 종교적 직관의 문제를 교육적 인식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근대의 제한된 인간관과 지식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 근거로서 직관의 개념을 고찰하고, 종교적 직관이 갖는 교육적 체험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직관 개념의 다차원성

직관(*Anschauung*, intuition)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합리적 과정(rational process)없이 사고하는 행위나 능력”, “직접적 인지(immediate cognition)”라고 할 수 있다.³⁾ 라틴어 어원인 *intueri*에서 *in*의 “한, 안으로”의 뜻과 *tueri*에서의 “보다, 찾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를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존의 합리적 사유는 외면, 혹은 외부의 변화를 통해 그 내부를 추론하거나 분석을 통해 짐작한다는 것에 비해, 내면을 직접 들여다 본다는 것은 다분히 신비적(mystic)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직관은 일상적 의식이나 감각, 기억을 통한 사고의 과정이 아닌 특정한 능력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직관의 기본 개념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감각을 통해 알 수 없는 신성(神性)이나 예언을 인식하는 설명불가능한(unexplained) 경험을 직관으로 간주하였다. 즉 일반적 인간에게는 부여받지 못하는 신적이고 영적인 “채능(gift)”으로 본 것이다.⁴⁾ 그러므로 고대에서의 직관 개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의 능력이 라기 보다는 특정한 “종교적” 영향하에서 가능하게 했던 신비스런 능력의 하나였

3) Deikman, Arthur, *Intuition, Inner Knowing*, New York: Penguin Putnam, 1998, p.177.

4) *Ibid.*, pp.177-178.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관에 대한 관심은 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근대 학문의 출현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게 된다. 특히 실증적 차원에서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집중했던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더욱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근대적 한계를 탈피하려는 학문 전반의 시도들은 심리학과 철학에서의 직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이들의 직관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는 종교적 인식과 접목시킴으로써 학문적 한계를 초극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직관의 문제를 통해, 직관 개념의 변화가 어떻게 종교와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종교적 직관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직관 개념

심리학의 분야에서 직관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형태주의 심리학에서이다. 이전의 주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해 배척되었던 직관의 개념이 형태주의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다. 형태주의 이론에서는 직관대신 통찰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형태주의 이론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통찰이란 쉼마를 완결하는 것(completion a schema), 문제를 재형성하는 문제표상의 재구조화(reconstructing), 시각적 정보의 재조직화(reorganizing), 정신적 장애(mental blocks)의 제거 등으로 보고 있다.⁵⁾

행동주의자들이 학습을 조건과 반응의 연합과 그에 따른 연쇄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형태주의자들에게서의 학습이란 분석할 수 없는 전체속에서 총체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임을 보이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이 단순히 연합에 의한 부분들의 축적이 아니라 전체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학습에 대한 견해는 실증성을 중시하는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으나, 인간인식을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 파악하고 총체적 인식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것이 형태주의자들의 기여일 것이다.

직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는 초개인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초개인심리학 이전의 인간주의심리학에서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자기실현적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욕구에 대한 계층이론을 제시하였다. 욕구를 병렬적이 아닌 계층적인 것으로 보고 하위 욕구들

5) M. Ayer, R. E., *The nature of insight*, Cambridge: MIT Press, 1995, pp.3-10.

이 충족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슬로우는 후기에 가서 인간의 자기실현의 욕구가 최상이 아니며 자기실현을 뛰어넘는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⁶⁾ 자기초월은 규정된 자기실현의 틀을 넘어섬으로서만이 가능한 비약적인 체험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초월적 인식에 기반한 초개인심리학은 깨우침이나 직관을 통해 존재 전체의 본질을 자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종교적 전통과 만나고 있다.⁷⁾ 특히 깨우침을 강조하는 선(禪: dhyāna)체험적 요소들을 끌어들이으로써 기존 심리학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자아의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깨달음의 선체험이란 자기와 남, 자기와 자연, 자기와 우주가 본래 하나(eness)였던 경지, 자기와 대상이 일체화된 상태를 깨닫는 체험이며, 주객 미분화의 순수경험(오직 보고, 듣고, 서며, 앉고, 명상할 뿐이며, 이를 의식하기 이전의 경험의 상태)이다.⁸⁾

그런 점에서 초개인심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가르침의 주입이나 계시의 전달이 아닌 자각적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자각이란 직관(直觀) 또는 각증(覺證), 각성, 각지(覺知)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느낌은 역사적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유레카(Eureka: I have found it)'에서도 드러나며, 우리의 일상에서 발현되는 '아하 체험(A ha experience)'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마음의 전기(轉機)이며 의식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insight)임과 동시에 창조과정에서 볼 수 있는 조명(illumination)이나 영감(inspi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⁹⁾

심리학의 관점에서 직관에 대한 개념의 규정은 이론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정의만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직관의 본질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론해 본다면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직관은 직접적인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봄"이라는 뜻으로 합리적, 논리적, 분석적 사고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감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과적인 설명 또한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포착함(intuitive grasp)"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구체적 형태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6) Maslow, Abraham,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이해성 역,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75-76쪽.

7) 정인석, 《트랜스퍼널 심리학》, 서울: 대왕사, 1998, 27쪽.

8) 위의 책, 71-72쪽.

9) 위의 책, 73쪽.

둘째, 직관은 무의식적인 작용이라는 점이다. 직관이 행동주의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성격에서 기인한다. 여기에서의 무의식적이란 의미는 무의지적(non-intentional)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직관에 의한 느낌은 의지적 활동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아니며, 이성적 사유에 의해 분별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관심이 돌려지고, 의식이 수동적 자세로 돌아갈 때 불현듯 일어나는 영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직관은 무가치적이다. 앞서 밝혔듯이 감각과 관련된 주관적인 것이라는 점은 가치판단 이전의 지각활동임을 의미한다. 직관에 의한 앎이 실증될 수 없고, 인과적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갖는 원초적이고 순수한 지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직관에 대한 접근은 종교적 직관을 이해하는 유용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직관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기 때문에, 직관의 전모를 다루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관의 근거가 무엇인지, 직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초개인 심리학이 동양의 종교적 전통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남겨두고 있다.

2. 철학적 차원에서의 직관 개념

서양철학에서의 직관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개념이다. 물론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명사로 사용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 개념을 일관되게 병치시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직관을 인식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서양철학사 전반에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큰 줄기로 본다면, 플라톤 이래 형이상학적 발상에 입각한 전통적인 합리주의적 철학들은 대체로 지성적 직관을 중시하고, 사유는 오히려 이 지성적 직관의 경지에까지 이끌어 가는 방법론적 과정이거나, 혹은 지성적 직관에 의해 포착된 시원적 원리로부터 연역적 추론을 수행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 입장의 이러한 사상은 칸트에 의해 직관을 감성적인 직관에 국한하고 지성적 직관을 부정함으로써 지성과 직관의 이원적 분리를 고착화시켰다고 본다.¹⁰⁾

10) 윤명로, <현상학에 있어서의 사유와 직관>, 한국현상학회 편,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6권,

그러나 칸트 이전의 전통철학이 지성적 직관을 중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직관을 지성의 한계하에 두었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된 직관과는 차이를 갖는다. 즉, 플라톤 이후 칸트 이전까지의 직관은 대상의 전모와 본질을 파악하는 인식작용으로서, 이데아(idea)를 비감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후설(Husserl)의 '본질직관'(Wesensschauung)으로 이어져, 감성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 추리가 아닌 직관에 의해 본질을 파악한다고 보았다.¹¹⁾ 따라서 직관은 이성적 인식의 한 형태라는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직관을 이성적 인식과 구별하여 철학적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는 대표적으로 스피노자(Spinoza)에게서 보여진다. 스피노자는 최상의 인식으로서 직관지(scientia intuitiva)를 설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실체의 양태임을 인식하고, 실체와의 관계 속에서 양태를 이해하는 것, 영원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을 이해하는 것, 개물의 본질을 영원의 상 아래에서 파악하는 것을 직관지라고 보았다.¹²⁾ 그렇다고 그가 직관지는 비합리적이고 신비스런 통찰로 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과의 관계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인식방식으로서 이성지보다 우월한 인식일 뿐이다.

스피노자의 인식론에 따르면 제1종의 인식은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와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표상지로서, 외부사물에 대한 혼란된 인식의 상을 말한다. 제2종은 공통관념(notio communis)으로부터의 연역적 추론지로서, 원칙적으로는 개별적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이성지로서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와는 달리 제3종의 인식이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직관지이다. 직관지는 자기인식을 동반하며, 나의 신체와 정신이 절대적 실체로서의 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¹³⁾

제3종의 인식인 직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피노자 철학의 기저에는 종교적 차원의 인식이 깔려있다. 그가 밝혔듯이 최상의 인식인 직관지를 통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실체 혹은 신으로부터 따라나오며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파악된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양태를 벗어나 정신의 영원성(aeternitas)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직관지에 의해서만이 알 수 있다.¹⁴⁾ 이 때의 직관지는 인식주체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인식의 순간에 일체로서의 신으로 통합되고 참여함을 의미

1992, pp.137-138.

11) 위의 글, 147-150쪽.

12) 김익현, 스피노자철학에서의 정신의 영원성과 직관지,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제50집, 2000, 103쪽.

13) 위의 글, 103-104쪽.

14) 위의 글, 106쪽.

한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직관에 대한 설명은 비록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 인식을 통해 철학적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서양철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성적 인식의 합리적, 논리적, 분석적 사유만으로는 인간 존재와 인식의 전모를 규정할 수 없다는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의 사유는 현대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에게 근대적 사유를 비판하는 인식의 틀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사유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III. 종교적 직관의 교육적 성격

종교적 직관은 앞서 제시된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직관의 이해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심리학과 철학에서의 직관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종교적 직관에서는 심리학과 철학에서 단지 직관이 드러나는 현상적 개념만이 아니라, 직관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과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직관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과 원리인 동시에 인간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과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종교적 직관이 갖는 교육적 성격 가운데 통합적이고 초월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적 직관의 통합적 성격

직관을 인간의식의 본연적이고 통합적인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은 현대물리학의 흐름을 동양의 종교적 전통과 연결시킨 카프라(Fritjof Capra)에게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는 추론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의 두 가지 지식 또는 의식의 양태가 있다고 보고, 이들이 각기 과학과 종교에 연관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서양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편애 때문에 직관적이고 종교적인 형태의 지식이 자주 평가 절하되어 왔고, 반면에 동양의 전통적 태도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이다.¹⁵⁾

카프라는 서구의 합리적 지식은 내적 범주화와 추상화라는 특징으로 인해 있

15) Capra, F., *The Tao of Physics*, 이성범·김용정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87, 33쪽.

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추상화는 이런 지식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널려있는 헤일 수 없이 다양한 형상과 구조와 현상들을 낱낱이 고려할 수 는 없는 일이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의 두드러진 것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사물들이 일반적인 윤곽으로 간추려진 실재의 지적 지도(知的 地圖)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적 지식이란 추상적 개념들과 상징들의 체계인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 활동의 전형을 이루는 직선적, 연속적 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알파벳을 길게 나열함으로 우리의 경험과 사고를 전달하는 대부분의 언어에 있어서 선적(線的)인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¹⁶⁾

추론적 지식의 한계를 지적한다고 해서 추론적 지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언어에 의존하는 추론적 지식만으로 사물이나 세계의 본질적 속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추론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직관에 의한 사유 역시 추론에 의해 뒷받침 될 때 의미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직관과 추론의 상보적이며 통합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직관이 갖는 통합지향적 특성은 홀리(Raymond Holley)의 종교적 이해(religious understanding)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이해는 종교적 이해의 깊이와 폭(Depth and Breadth)안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종교적 이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관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교적 이해는 (과학적, 역사적 이해와 달리) 완전히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다. 그것은 학문적 추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의 영적 실재(ultimate spiritual reality)로서의 자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신념을 가진 인간 삶의 영적 차원 안에서 포착될 수 있는 감식력(discernment)이다. 그 지적인 목적은 종교적 신념의 삶에 내재하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직관하는 데에 있다.¹⁷⁾

홀리의 종교적 이해에 기반한 직관은 단순히 학문적 이해(Scholarly understanding)와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있지 않고, 삶에 관계된 모든 제요소들간

16) 위의 책, 34쪽.

17) Holley, Raymond,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understand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107.

의 관련성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언어의 논리 구조에 한정된 학문적 이해를 넘어서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앎(tacit know ing)에 가깝고, 개념이나 의미구성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인식(im m ediate aw ar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앎의 경험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족된 경험이라는 점에서 듀이(John Dew ey)가 말한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은 통합의 개념이다. 종교적 직관이 갖는 통합적 측면은 전체를 파악하는 그 자체일 뿐 전체로서 끼워맞추고자 하는 파편화된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 직관의 통합적 성격은 있는 그대로의 전체에 대한 통찰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분 부분들을 전체로 구성하려는 인위적인 개념적 태도로서의 통합과는 구별된다. 슈라이어마허(Schleierm acher)가 전체로서 결합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변행위일 뿐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한 지적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전체의 개념은 경계를 짓고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체험적 지평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직관은 항상 어떤 개별적인 것, 구별된 것, 직접적인 지각이며 늘 이러한 것들로 존재하는가 하면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이들을 결합하고 전체로 통합하는 것은 이미 다시금 감각의 일이 아니며 이는 추상적인 사유의 일이다. 종교란 이러하다. 그것은 우주의 현존과 그 행위에 의한 직접적 경험 가운데 있으며 개별적인 직관과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모든 직관과 감정은 다른 것과 연관되거나 이들에 종속됨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작품이다. 종교는 연역이나 결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종교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종교의 본성이 대부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근원적이고 최초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별적인 사실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종교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직접적이며 그 자체로 참이다.¹⁸⁾

슈라이어마허의 직관에 대한 설명은 직관을 감정과 느낌과 연관된 것으로 봄으로써 개념적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교육에 적지 않은 시사를 주고 있다. 그는 개념적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과 충동과 명상에 해당되는 직관적인 인식이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보았다. 전체로서의 세계, 통합되어 있는 우주를 그 자체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은 교육적 세계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8) Schleierm acher, Friedrich D. E., *Über die Religion*. 최신한 역, 《종교론》, 서울: 한들, 1997, 62-63쪽.

2. 종교적 직관의 초월적 성격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인식의 특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실증적 사유라 한다면 종교적 직관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비실증적 인식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유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인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축적적(accumulative)이고 인과적(cause-effective)인 것이라면 종교적 직관은 불연속적이고 비단계적이라는 점에서 초월적 특성을 갖는다. 종교적 직관은 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시간적이며, 전체에 대한 통찰이라는 점에서 비약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전달가능한 언어의 체계와 논리에 국한된 것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은 본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전달을 위한 매체이며 자극과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촉매체일 뿐이다. 따라서 언어 그 자체가 진리일 수 없으며, 초월의 계기가 될 수도 없다. 언어도단(言語道斷)이나 불입문자(不入文字)라는 의미는 바로 언어를 통한 사유로는 깨달음이라는 계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언어를 매개하지 않은 직관적 인식은 각기 다른 종교적 전통에 따라 계시(revelation), 회심(回心: conversion) 혹은 깨침(覺)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들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결국은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떠난 직관의 구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계시의 개념은 때로는 배타적인 인격신에 입각한 특수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형태는 주관과 객관, 신과 인격, 개체와 세계의 이분적 구도를 넘어서 있는 개념이다. 즉, 계시의 주체와 계시의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초월의 순간을 의미한다.

계시는 출발점이 아니라, 긴 여정의 끝이다. 이는 여전히 신에 대한 희미하고 불충분한 관념에서 출발한다. 계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자기표현(self-disclosure)이 아니다. 또한 신에 대한 모든 지식의 출발점도 아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계시는 베일에 가려진 신이 결국에는 그 베일을 벗어버리는 것(re-velatio) 그 자체일 뿐이다.¹⁹⁾

이러한 기독교적 계시의 개념은 불교에서 말하는 회심과도 통하고 있다. 회심은 자신의 한계를 직관함으로써 생기는 존재론적 자각이다. 따라서 장애와 경계를 만날 때 생기는 내면적 각성의 순간이며, 깨침의 계기이다. 공하면 통한다'고 하는

19) Robinson, James M. & Cobb, John B., *The Revelation of God in Jesus*, Theology as History, 1967, p.118.

말에서 볼 때도, 공하다'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통하는' 인식의 표출임을 볼 수 있다.²⁰⁾ 즉, 크게 공할수록 그에 따른 회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체험하는 죽음(자기부정)의 순간이며, 이를 계기로 다시 생성되는 부활(자기초월)의 체험이다.

이러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실존적 자각은 합리적 분석에 의한 평가나 반성만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 그것은 직관을 통해 유발되는 직각(直覺)의 형태임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초월한 사람이다. 무엇인가 고통스런 일이 있다. 혹은 덤다 그리고 춥다고 할 때, 고통을 고통으로 관하고 한서(寒暑)를 한서로 관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동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가능하다. 여기에 인간의 묘미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의식이라는 것이 생긴 셈이다. ... 직각(直覺), 즉 개인적 체험이 없으면 종교는 아무런 뜻도 갖지 못한다..

초월은 인간 존재로서의 격(格)을 탈피함으로써 인식적 한계를 극복하는 존재론적 지평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²¹⁾ 자기긍정을 통해 구축된 것이 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은 격'의 증대나 확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부정을 통한 파격(破格)'의 상황에서 진정한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아를 확고히 하려는 근대의 자아정체성(Identity)의 개념은 종교적 직관을 통한 초월의 개념을 통해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종교적 직관은 인간의식의 본질적 측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매슬로우가 '교육은 그 궁극적 가치, 바꾸어 말하면 영적 가치(Spiritual values)' 혹은 최상의 가치(Higher value)'에 관련되지 않으면 안된다."²²⁾ 고 한 것처럼 교육의 궁극적 가치는 종교적 가치

20)鈴木大拙, 앞의 책, 20쪽.

21) 서명석, 〈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존재에 관한 초월적 입론〉, 한국교육학회 편, 《교육학연구》 Vol. 40, No.5, 2002, 47-51쪽.

22) Maslow, Abraham H., Religions, Values, and Peak-Experiences, New York: The Viking

와 상통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제한된 교육적 인식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 종교적 직관은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적 인식으로서의 종교적 직관이 갖는 주요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종교적 직관은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ence)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앞서 밝힌바 있듯이 근대 이후의 교육 경험이 갖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적 사유와는 달리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창조적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적인 것이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이분적 도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종교적 직관은 교육의 궁극적 지향(ultimate intention)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공교육 중심의 교육관에서는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의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직관에 의한 '회심'이나 '깨침'으로서의 종교적 체험의 궁극성은 현대교육에 적지 않은 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교적 직관은 본질적으로 자기초월적(self-transcendental) 경험이다. 직관의 가치는 인식의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본연적으로 존재 자체의 고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식과 존재, 안과 밖, 개체와 전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월적 인식임과 동시에 초월적 존재관을 의미한다. 기존의 자아실현 개념이 자칫 자아(ego)의 증대나 확장으로서의 자아 중심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아는 실현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초월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직관에 관련된 연구들이 창의성과 관련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존에 관과되어 온 교육적 관심 영역들을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직관에서의 직관적이라는 어휘는 논리적, 분석적, 언어적이라는 개념의 상대어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극의 것에 대한 물음과 극한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를 지배하는 교육적 인식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인식의 포괄적 근거로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시도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익현, 스피노자철학에서의 정신의 영원성과 직관지,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제50집, 2000.
- 서명석, 교육의 대상으로서 인간-존재에 관한 초월적 입론, 교육학연구 Vol. 40, No.5, 2002.
- 윤명로, 현상학에 있어서의 사유와 직관,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6권, 한국현상학회 편.
- 정인석,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서울: 대왕사, 1998.
- 한명희, 교육의 미학적 탐구, 서울: 집문당, 2002.
- Capra, F., *The Tao of Physics*, 이성범 · 김용정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7.
- Deikman, Arthur, *Intuition, Inner Knowing*, New York: Penguin Putnam, 1998.
- Gill, Jerry H.,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Knowledge*,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71.
- Holly, Raymond,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understand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aslow, Abraham H., *Religions, Values, and Peak-Experiences*, New York: The Vinking Press, 1973.
- _____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이해성 역,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 Mayer, R. E., *The nature of insight*, Cambridge: MIT Press, 1995.
- Robinson, James M. & Cobb, John B., *The Revelation of God in Jesus*, Theology as History, 1967.
- Schleiermacher, Friedrich D. E., *Über die Religion*, 최신한 역, 종교론, 서울: 한들, 1997.

원고접수: 10월 15일 1차심사: 11월 10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교육철학, 종교교육 / 소속: 동국대학교 강사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현대교육사상
- ③ 주요논저: 〈인간본성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교육종교학 성립의 필요성과 전망〉, 〈근대적 교육관에 대한 종교교육적 고찰〉
- ④ E-mail: vinetar@hanmail.net
-

The religious intuition as an educational awareness

Park, Beom-Seok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religious intuition. Religious experience can be considered as an 'educational' one which makes possible the integral awareness and leads to transpersonal being. It will change the goal of education from self-realization to self-transcendence. The intuition as a religious experience toward self-transcendence means awakening the direct and immediate recognition. It transcends the words and ego because words-mediated recognition is logical, analytic, and conceptual that is limited as an abstract and ideological boundary. In this way, religious intuition is the direct-awakening leading to revelation and conversion that overcomes the dual-system like subject-object, part-whole and in-out.

The educational character of religious intuition is as follow:

First, religious intuition is a form of educational experience. It will overcome the classical concept of education that has been intellectual or moral one.

Second, religious intuition is related to the ultimate intention of education. It will b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ducational problem overlooking the ultimate thing of life and education.

Third, religious intuition is essentially self-transcendental experience. We can hav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ranscendental being from escaping the ego-centric self concept.

Key words : religious intuition, insight, transcendence, revelation, conversion